야금 지혜 속 '當代 最高' 불교미술이…

〈冶金〉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으로 전환되면서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문화계도 조금씩 활기를 띠는 분위기다. 위드코로나의 시작과 함께 가볼만 한 불교관련 전시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호암미술관 재개관전 '야금:위대한 지혜'
10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1층 전시장
최초 공개 은제아미타여래 삼존좌상 비롯
국보 5점 보물 2점 현대미술 9점 등 선봬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최초로 공개되는 은제아미타여래삼존좌상(고려, 14세기, 은, 높이 19.3cm).

상설전을 전면 개편하고 지난달 재개관한 호암미술관이 재개관 기획전 '야금(冶金) : 위대한 지혜'를 개최한다.

10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1층 전시장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이번 전시를 통해 최초로 공개되는 은제아미타여래삼존좌상을 비롯해 국보 5점, 보물 2점, 현대미술 9점, 국가무형문화재 작품 5점 등 총 45점의 걸작을 선보인다.

현재 전해지는 대표적인 금속 유물을 중심으로 제작 기술이나 장식 기법 등에 치우친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각 시대의 상징이자 위대한 지혜로서의 야금에 대해 조명한다. 더불어 야금에 깃든 지혜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창의적으로 계승되어 오늘날 예술의 영역에서 조각, 설치미술, 영상 등 다양한 작품들을 탄생시키고 있는 현재진행형임을 강조한다.

'야금' 展은 장구한 한국미술의 시작으로 일컬어지는 금속 미술의 세계를 고대부터 현재까지 야금이란 주제로 조명한다. '야금'은 불(火)로써 금속을 다루는 일을 통칭하는 말로 그 시작과 과정, 결과물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다. 고대 청동기부터 금관 및 장신구, 강철 무기류, 불상 및 불교 공예품 등 수많은 문화유산에 우리의 우수한 야금 문화가 깃들어 있다. 이처럼 오랜 시간 축적된 다양한 금속의 활용과 장식 기법은 각 시대 나름의 상징성을 담아내며 기술을 초월한 민족의 지혜로 전승되었다. 야금의 지혜는 과거에 멈추어 있지 않고 과학 및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발전하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매김했다. 예술의 분야에서도 전통을 계승한 장인들과 현대미술가들의 시대 성찰과 미감을 반영한 다채로운 작품으로 야금의 예술성을 풍성하게 감상할 수 있다. 전시에서는 시대를 초월해 혼과 정신으로 이어진 우리의 지혜를 품은 금속 미술의 정수들을 폭넓게 선보인다. 이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반도체를 포함한 재료공학 및 제철 산업, 과학, 예술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토대는 다름 아닌 고귀한 야금의 전통과 위대한 지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총 4부로 구성된 전시 중 3부 '부처 : 적멸의 빛과 해탈의 울림'에서는 은제아미타여래 삼존좌상(고려, 14세기, 은, 높이 19.3cm), 금동보살좌상(조선, 15세기, 금동, 높이 47cm), 철조여래좌상(고려, 10세기, 철, 높이 84.5cm), 금동보살좌상(조선, 15세기, 금동, 높이 46.7cm), 금동여래오존좌상(고려 말 조선 초, 14~15세기, 금동, 높이 9.8cm), 용두보당(국보, 고려, 10~11세기, 금동, 높이 104.3cm), 금동 풍탁(고려, 10세기, 금동, 높이 37.2cm), 선림원종(복원품, 원종 804년 주조, 청동, 한국전쟁 당시 파손), 금동 용두 토수(보물, 고려, 10세기, 금동, 30.5cm), 청동은입사 운룡문 향완(국보, 고려, 1229, 청동, 은입사), 청동은입사 봉향문 합(국보, 고려, 11~12세기, 청동은입사) 등 불교관련 유물이 전시된다.

은제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불상이 자리한 대좌와 뒤편의 광배 조각이 섬세하고 화려한 고려 말기의 작품이다. 중앙의 여래상과 양 옆의 협시보살의 보관, 목걸이, 자세 및 안면 표현이 전형적인 고려 말 14세기 양식을 갖추고 있다.

철조여래좌상은 고려 초기의 작품 중에서 통일신라의 양식을 계승하고 있는 수작으로 철불 특유의 거친 표면과 어두운 색채는 강인함과 고된 수행의 여정을 자비롭게 품고 있는 부처의 모습을 모두 담고 있다.

용두보당은 실제 당의 미니어처로 당시 실내 봉안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도금과 칠로 아름답게 장식한 고려시대 공예품의 대표작 중 하나다. 고려 시대 유일하게 전해지는 당간의 미니어처로 당시 실제 석조 및 건축양식까지 파악할 수 있는 귀한 작품으로 국보이다.

삼국시대 불교가 전래된 이래 불교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그로 인해 수많은 불교미술품이 깊은 신심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특히 신앙을 바탕으로 조성된 불교 미술은 일반 미술품보다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기에 그 시대의 최고 명작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삼국시대부터 모든 시대에 걸쳐 지속되었고, 그 속엔 다름 아닌 야금의 지혜를 품은 우리 민족의 격조 있는 신앙과 자신감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노출 콘크리트 공간에 쇠로 만든 파티션과 쇼케이스를 사용했으며, 360도 모든 방향에서 감상이 가능한 새로운 공간연출을 선보인다.

관람은 무료이며, 호암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관람 2주 전부터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다. 시간당 100명, 하루 8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단체 예약은 잠정 중단하고 있다. (031-320-1801)

양주회암사지사리탑 보물승격 기념전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2022년 2월 20일까지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이 10월 26일부터 2022년 2월 20일까지 양주회암사지사리탑(사진, 이하 사리탑)의 보물 승격을 기념하는 특별전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을 개최한다.

2021년 6월 보물 제2130호로 승격 지정된 사리탑을 널리 알리고 사리탑이 지닌 보물로서의 가치가 무엇인지 조명하는 이번 전시는 총 3부로 나눠 사리탑의 이력과 현황, 보물로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들을 소개한다. 특히 5.89m에 달하는 사리탑의 생생한 모습을 실내 전시장에서 더욱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를 전시하여 시각적 즐거움을 더했으며, 우리나라에 소재한 여러 사리탑을 차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감상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도 함께 마련했다. 사리탑은 2021년 6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130호로 승격 지정됐다. (031-8082-4171) 박재완 기자

국립해양문화재硏 '해저만발' 展

기획전시실, 2022년 5월 15일까지



태안선 청자 발우(세트).

태안 앞바다 침몰선에서 발견된 발우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연수)는 내년 5월 15일까지 특별전 '해저만발(海底萬鉢), 바다에서 만난 발우'를 태안해양유물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발우는 식기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Pātra(파트라)'를 한자로 옮긴 '발다라(鉢多羅)'를 줄인 '발(鉢)'과 밥그릇을 의미하는 '우(盂)'가 합쳐진 단어로, 스님들이 식사를 할 때 사용하는 그릇이다. 응기(應器), 응량기(應量器)라고도 하며, 바리, 바루, 바리때 등으로도 부른다. 이번 전시는 태안 대섬 바다에 잠겨있던 태안선에서 나온 청자 발우(이하 태안선 청자 발우)를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태안선은 2007년 주꾸미가 청자접시를 끌어올려 알려진 고려 시대 청자 운반선으로, 발굴 당시 2만 3000여 점의 고려청자가 발견되었다. 전시에서는 그 중에서 선별된 발우 138점을 선보인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전시는 태안선 청자 발우와의 만남을 계기로 발우가 가지는 의미, 태안선과 고려청자, 고려 시대 불교문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진관사 수륙재, 불화로 만나다

은평역사한옥博 특별전
2022년 2월 27일까지



감로도,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불화로 진관사 수륙재를 조망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은 '감로(甘露), 법의 비(法雨) 내리네' 展을 내년 2월 27일까지 개최한다.

진관사 수륙재는 고통을 치유하고 행복을 기원하는 불교의 대표 의례로 예로부터 역병과 같은 재난이 돌 때에 널리 행해졌다. '감로, 법의 비 내리네'는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싹틔워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기원하며 마련됐다.

이번 전시는 조선 건국 이래 백성의 평안을 위해 봉행됐던 진관사 수륙재의 문화적 가치를 살피고 의식 불화의 예술성을 조망한다. 전시에는 조선시대 의식 불화로 18세기 '삼장보살도'와 '감로도'를 소개하고 어울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진관사 국행수륙재의 역사와 '칠여래번' 등 실제 의식에 사용하는 불화들을 선보인다.

연계 행사로 기획된 '박물관-진관사 투어 프로그램'도 눈여겨볼 만하다. 신성민 기자

경자 신축년의 지구촌 코로나와
임인년 이후의 세기적 변화에 대한
근본불교와 대승불교에서의 처방 및
비밀한 가르침에 대한
놀라운 해설서 !!!



일곱번째 완성자
우리 곁에 오신 미륵

- 미륵부처님이 왜 일곱단계를 거쳐서 오시는가?
- 석가모니 부처님의 무명과, 법신불의 광명은 어떤차이가 있는가?

대방광불화엄경의
진실한 뜻을 밝힌다.

- 선재동자가 삼아승지겁을 뛰어넘어 찰라지간에 성불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 수많은 천상의 신계와 인간은 어떻게 소통하나?
- 법계가 바뀌어 광명천지 되는 원리는 무엇인가?

각 권 정가 20,000원 (이만원)

문의 010-3514-7084

탈 종 공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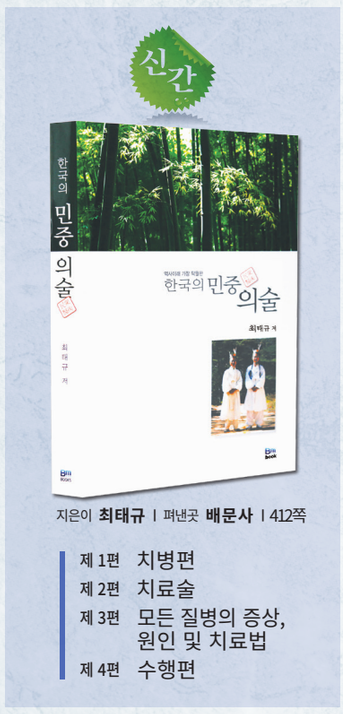
- 사찰명 : 수리산 용화사
- 주 지 : 혜우 (속명 : 이영옥)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389-9 공평빌딩6층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